

현안과 과제

호모 디아볼루스(Homo-diabolus)가
세상을 바꾼다



Executive Summary

□ 호모 디아볼루스(Homo-diabolus)가 세상을 바꾼다

■ 위기의 한국

2011년 11월 The Economist는 '선진국 따라가기' 전략에 따른 지난 50여 년 간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을 버리고 혁신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는 세계 소비자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킬러 상품(killer product)"을 다양한 분야에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3위에 머문 세계 1위 상품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역부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 호모 디아볼루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역

현재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토머스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가의 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New York Times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공식적인 교육의 거부, 못된 성격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평가와 언급을 종합했을 때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 인간인 '합리적 경제인(Homo-economicus)'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오로지 흥미를 위해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평생 어린 시절의 말썽꾸러기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유지했음을 뜻하며, 따라서 인간을 의미하는 'Homo'와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devil'의 라틴어인 'diabolus'를 합성한 '호모 디아볼루스(Homo-diabolus)'로 이들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잡계 이론은 안정적 상황과 혼돈 사이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혼돈으로 전이하기 직전의 상태인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의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을 기준으로 조화로운 안정성에 대응시키고, 부조화

는 불안정성에 대응시킬 수 있다. 창의력은 오랜 시간의 집중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부조화적인 인간에 더 적합해 보인다. 곧, 창의력은 조화에서 부조화로 전이될 때 혹은 스티브 잡스와 같이 조화로운 특징보다 부조화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서 쉽게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호모 디아볼루스가 창의적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한다. 헨리 포드부터 최근의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표적인 혁신기업의 창업주들은 이러한 호모 디아볼루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험은 부조화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문에서 '호모 디아볼루스가 많이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많은 아이돌 가수들의 경쟁력은 대형기획사들이 한 가지 재능을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 창의적이고 능력은 있지만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부조화를 낮추고 조화로우심을 증진시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금융, 의료, 법조계 등에 안착해 한국사회에 실망감을 던져주기도 했다. 따라서 '호모 디아볼루스'는 부조화적인 사람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일수록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시사점

첫째, 교육제도를 '호모 디아볼루스'형 학생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위한 것의 two track으로 운영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호모 디아볼루스형 인간이 영원히 말썹꾸러기의 기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야 한다. 세계가치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서처럼 비주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을 위해 기업은 '호모 디아볼루스'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소행성 (asteroid)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기존 조직은 간섭을 최소화하여 단순히 후견인 역할만 수행하고,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I. 위기의 한국

○ 한국의 선진화는 남이 닦은 길만을 따라가서는 불가능하며, 혁신을 통해 스스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2011년 11월 The Economist는 한국은 이제부터 새로운 발전경로를 혼자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보도
 - 한국은 약 50년 만에 절대빈곤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로 전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
 -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이나 기업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따라가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에 달한 지금부터는 스스로 나아갈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 현실적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 이들을 중독 시킬 수 있는 많은 “킬러상품(killer product)”을 개발하는 것이 열쇠
 - 2010년 기준으로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39%로 높지만 2009년 현재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에서 한국은 74개로 세계 13위에 머뭇
 - 한국이 충분한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었지만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의미

< 2009년 현재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 >

(단위: 개)

국가	상품 수	국가	상품 수
중국	1,239	프랑스	124
독일	852	인도	112
미국	633	홍콩	96
이탈리아	268	영국	88
일본	230	캐나다	75
네덜란드	140	한국	74
벨기에	131		

< 2010년 현재 국가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단위 %)

국가	비중	국가	비중
중국	47	프랑스	19(2009)
독일	28	인도	26
미국	20	홍콩	7(2009)
이탈리아	25	영국	22
일본	27(2009)	캐나다	32(2007)
네덜란드	24	한국	39
벨기에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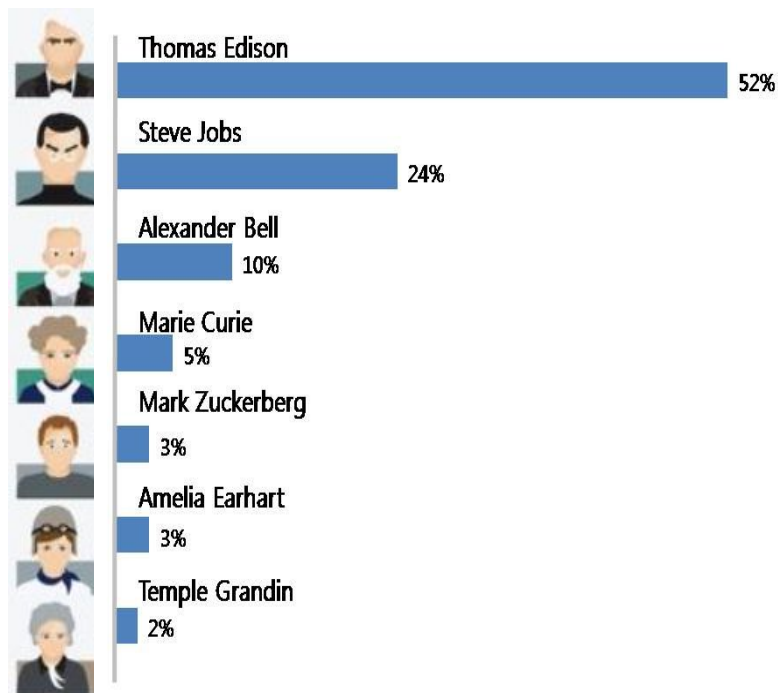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가장 최근의 집계년도.

II. 호모 디아블루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역

○ 한국이 현재 처한 딜레마는 한국의 토마스 에디슨과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

- 2012년의 '레멜슨-MIT 발명지수(Lemelson-MIT Invention Index)'에서 미국 젊은이들은 가장 위대한 발명가 1위와 2위로 에디슨과 잡스를 꼽음
- 1,010명의 16세에서 25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MIT의 Lemelson-MIT Program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가 토마스 에디슨을 그리고 24%가 스티브 잡스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생각한다고 밝힘

< 미국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가 >



자료: Lemelson-MIT (<http://web.mit.edu>).

- 에디슨과 잡스는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
- 에디슨은 제2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발명했고 잡스는 PC(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 정보화시대를 앞당김

-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버금가는 변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에디슨이나 잡스에 비견되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함을 의미
 - 전혀 새로운 제품, 산업, 조직, 경영방식, 인력 등을 세상에 내놓는 것만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 이것이 가능하려면 에디슨이나 잡스에 비교될 수 있는 창의력의 발휘가 반드시 필요

○ 에디슨과 잡스는 시대와 연령을 뛰어 넘어 평생을 ‘말썹꾸러기(devil)’로 살았던 ‘말썹꾸러기형 인간(호모 디아블루스, Homo-diabolus)’

- 2011년 10월 8일의 New York Times는 에디슨과 잡스가 네 가지 정도 일반인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도1)
 - 첫째, 당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공식적인 교육을 덜 받음, 둘째, 거대한 규모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형상화하는 능력 보유,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름 그리고 넷째,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못된 성격 소유
- 에디슨과 잡스는 어린 시절 발현된 말썹꾸러기의 자질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음
 - 에디슨은 초등학교 선생이 교육을 포기해 초등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이고 잡스는 대학교육의 가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 1학년 도중에 자퇴
 -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치기도 하고, 그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다반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수시로 해고하기도 했다는 면에서 에디슨과 잡스는 전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인
 - 기업가의 사회적 의무 중 하나로 최근 자주 거론되는 기부행위(donation)에 있어서도 에디슨과 잡스는 인색해 사회적 비난을 자초
- 에디슨과 잡스는 평생을 말썹꾸러기로 남고자 했다는 면에서 ‘말썹꾸러기형 인간(호모 디아블루스)’으로 분류 가능
 - 자본주의 사회의 표준형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적 인간(Homo-economicus)’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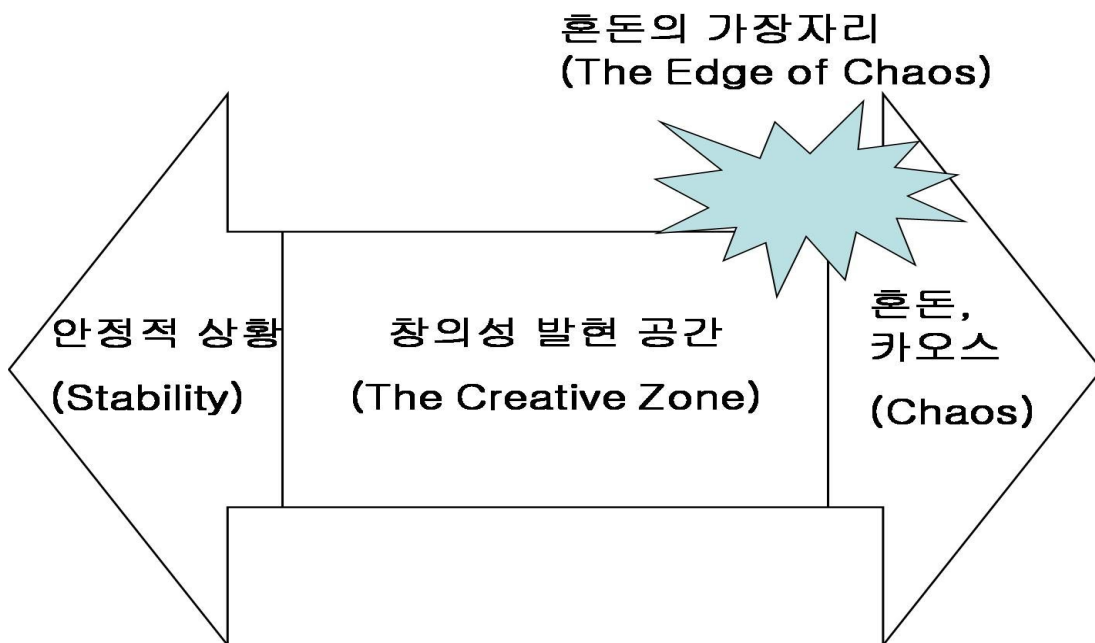
1) “The Wizard and the Mortal: Two Sides of Genius,” The New York Times, Oct 8, 2011.

-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에디슨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업가(the world’s greatest inventor and the world’s worst businessman)”라고 할 정도로 그는 경제적 가치에 무덤덤
- 잡스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았지만 이를 그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데 사용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이를 극소화시키는 ‘최소주의(minimalism)’를 평생 실천
- 에디슨과 잡스는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표준적 가치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재능에 맞춰 다양한 가치를 끝없이 추구했다는 면에서 자본주의의 말썽꾸러기

○ 복잡계이론은 ‘호모 디아블루스’가 창의성과 밀접함을 보임

- 복잡계이론에 따르면 안정적 상황과 혼돈 사이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혼돈으로 전이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의성이 극대화된다고 함
- 헬렌 슈만(Helen Shulman)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므로, 그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

< 창의성과 혼돈의 가장자리 >



자료: The Center for Creative Emergence (<http://www.creativeemergence.com>).

- 개인을 기준으로 조화로움은 안정성에, 그리고 부조화는 불안정성에 대응
 - 창의성 발현 공간과 혼돈의 가장자리는 사회나 조직에 대한 개념이지만 한 개인에 대해서도 유추해서 적용 가능
 - 안정성 vs. 불안정성과 같은 대비되는 구도로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특징 중 하나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인(mentally stable)(Webster Dictionary)”로 정의되는 “조화(well-balanced)”와 이에 대비되는 “부조화”를 들 수 있음

 - 개인적 창의력은 조화에서 부조화로 전이될 때 혹은 조화로운 특징보다 부조화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서 쉽게 발현
 - 일반적으로 창의력은 “오랜 기간의 치밀한 몰입 (long period of intense concentration)”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몰입은 조화보다는 부조화적인 현상으로 치밀한 몰입의 시작은 조화로움에서 부조화로의 전이를 뜻하며 부조화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만큼 몰입이 쉬움을 의미

 - 조화로움과 창의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호모 디아블루스’는 부조화적인 동시에 창의적인 인간에 해당
 - 자본주의사회의 표준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조화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의 결과물
 - 부조화적인 특징이 혁신의 전제이기 때문에 ‘호모 디아블루스’는 당연히 창의적일 가능성이 높음
- 현재의 대표적인 혁신기업과 역사적인 혁신사례에 있어서 항상 ‘호모 디아블루스’가 결정적인 역할

< 역사적으로 혁신을 선도한 경영자들의 학력 >

기업	경영자	학력	혁신내용
포드자동차	헨리 포드	고등학교 중퇴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
NBC / RCA	데이비드 사노프	고등학교 중퇴	통신과 텔레비전 방송의 혁신
GE	토머스 에디슨	초등학교 중퇴	전기 / 전자산업의 선구자
월트디즈니	월트 디즈니	고등학교 중퇴	애니메이션/ 캐릭터/ 테마파크산업
맥도날드	레이 크록	고등학교 중퇴	패스트푸드 체인점 외식산업

- 역사적으로 혁신은 거의 대부분 당시 사회의 표준과 거리가 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도
 - 자동차 왕 헨리포드,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월트디즈니는 각각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
- 21세기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의 창업자들도 많은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사회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음
 - 잡스는 대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고,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
 - 야후와 구글의 경우 실리콘밸리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피짜들을 인정하는 대학교의 전폭적 지원으로 인해 학업과 사업의 병행이 가능했음

< 21세기 대표 혁신기업 창업자들의 학력 >

기업	경영자	학력
애플	스티브 잡스	리드대학 중퇴
	스티브 워즈니악	버클리대 중퇴
마이크로 소프트	빌 게이츠	하버드대 중퇴
	폴 앨런	워싱턴주립대 중퇴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하버드대 중퇴
야후	제리 양	스탠퍼드 졸
구글	래리 페이지	스탠퍼드 졸
	세르게이 브린	스탠퍼드 졸

○ 최근 한국에서의 경험은 인간의 부조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경우 '호모 디아블루스'가 많이 등장하거나 지속될 수 있음을 보임

- 현재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연예인들은 기획사 시스템을 통해 길러졌다는 면에서 만들어진 '호모 디아블루스'라고 할 수 있음
 - 연예기획사는 노래, 연기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재능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형태로 부조화성을 극대화시킴
 - 2004년 이전 데뷔한 아이돌 가수들의 89%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데뷔한 경우 66%로 떨어진 것은 이들이 사회적 표준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

- 반면 '호모 디아블루스'의 자질을 의도적으로 줄인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 의료, 법조계 등 표준적인 직업에 안착
 - 최근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메달까지 따온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 20명 가운데 13명이 의과대학, 1명이 치과대학으로 진학
 - 그 결과 영재교육이 영재를 오히려 망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효과를 둘러싸고 사회적 격론이 발생
- 부조화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일수록 '호모 디아블루스'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의적이 됨
 - '호모 디아블루스'는 갖고 있는 자질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에 따라 혁신가 혹은 단순한 말썹꾸러기가 될 수 있음
 - '호모 디아블루스'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천재와 같은 다른 부조화적인 인간들도 그만큼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며 해당사회 또한 그만큼 더 창의적이 되는 셈

III. 시사점

- '호모 디아블루스'형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발휘시킬 수 있는 기회를 교육제도를 개편해서 도입
 - 부조화적인 '호모 디아블루스'형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일반교육이 아닌 전문교육
 - 의무교육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은 '호모 디아블루스'형 인간에게는 부적합
 - '호모 디아블루스'형 인간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특별한 재능을 시험해보고 키울 수 있는 기회 필요
 - 학제를 '호모 디아블루스'형 학생을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위한 것의 two track으로 운영
 - '호모 디아블루스'형 학생이 조기에 대학에 입학해서 그에 맞는 학과에서 자신의 능력을 먼저 시험해볼 수 있게 대학입시를 이원화

- '호모 디아블루스'형 학생에게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월반을 허용하고 대학 과정에서는 교양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수강해도 졸업할 수 있게 허용
- '호모 디아블루스'가 영원히 '호모 디아블루스'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 다른 사고와 가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용력을 넓혀야 함
 - 한국은 소수자와 비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개 국가들 중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14위 기록
 - 이를 종합한 일종의 태도지수(Attitude Index)에서 스웨덴이 1위, 반면 한국은 14위를 차지해 다른 가치와 사람에 대해 가장 패쇄적인 것으로 나타남
 - 주류와 구별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 필요
 -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서처럼 이들을 위한 기회를 따로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장애를 최소화
 -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른 생각이 평균적인 사고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혁신을 위해 기업은 '호모 디아블루스'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일종의 '소행성(asteroid)'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소행성은 말쑥꾸러기면서 창조자로 우주의 '호모 디아블루스'
 - 소행성들은 일반적으로 작고, 서로 관련성도 없으며 불규칙한 모습에 그 궤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을 공유
 - 하지만 소행성은 다른 소행성, 행성, 혜성 등과의 충돌을 비롯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우주질서를 탄생시킴

- 기업은 '호모 디아블루스'의 소행성조직에 완벽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후견인으로만 머무르는 마치 행성과 같은 태도 견지
 - 기업은 소행성조직에 전체적인 필요예산을 배정 ·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
 - 소행성조직은 그 목적, 운영방법, 보상체계와 규모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것을 구성원인 '호모 디아블루스'들 스스로가 결정

산업연구본부 예상한 연구위원 (2072-6232, syeahk@hri.co.kr)
산업연구본부 안중기 연구원(2072-6242, joonggiahn@hri.co.kr)